예비 작가들의 문학축제 '2025 광주일보 신춘문예' 막 올라

시·소설·동화 3개 부문 공모…12월5일까지 접수 마감
광주 출신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맞물려 '주목'

2025 광주일보 신춘문예가 12월 5일까지 작품을 공모한다. 지난해 열렸던 신춘문예 심사 장면. (왼쪽부터 배다인 동화작가·손택수 시인·정이현 소설가)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찬바람이 부는 11월이면 유독 가슴이 설레는 이들이 있다. '문학병'을 뜨겁게 앓는 예비 문인들이다. 문청들은 낙엽들이 하나 둘씩 떨어지고 붉게 물드는 모습을 보며 '올해도 가는 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신춘문예가 코앞으로 다가온 사실을 직감한다.

2025 광주일보 신춘문예가 최근 공모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사고를 통해 공모를 낸 광주일보는 올해도 예비 문인들의 응모를 기다리고 있다. 광일 신춘문예는 오는 12월 5일까지 시, 소설, 동화 3개 부문을 공모한다.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 시작한 이후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돼 왔다. 문학청년(문청)의 한결 같은 꿈은 바로 신춘문예 당선이다. 당선이라는 '자격증'을 거머쥔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그 열망이 강렬하다.

부문 별 응모 요령은 다음과 같다. 단편소설은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300만원)이며, 시는 3~5편(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동화는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이다.

접수 마감은 오는 12월 5일(우편 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까지이며, 보낼 곳은 다음과 같다.(우편 61482 광주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편집국 문화부 신춘문예 담당자)

특히 올해는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문학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어느 해보다 높다. 광주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한강 작가에게 고향 광주와 남도는 문학적 자양분이 되었을 것이다. 작품에 투영된 광주의 상흔, 광주 정신, 남도의 풍광 등은 섬세하면서도 빼어난 문장과 사유의 근원이 됐다.

노벨문학상 선정위원회가 밝힌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은 광주 현대사의 비극과 슬픔이 시적인 문체로 감동적으로 그려졌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내로라하는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대부분 중앙 일간지, 지역 주요 일간지 신춘문예 출신 작가라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당선이 된다는 것은 명예로운 '문학적 증명서'를 받는 것과 같다는 인식 때문이다.

광주일보 신춘문예를 거쳐 간 내로라하는 문인들도 많다. 이들은 지역에서뿐 아니라 중앙에서도 필력을 인정받을 만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준태 시인을 비롯해 임동확 시인, 김선태 시인, 고(故) 이성부 시인, 고(故) 송기원 시인 등이 있다.

소설에는 백시종 작가, 김신운 작가, 이삼교 작가, 이미란 작가, 정강철, 송은일 작가 등이 있다.

동화에도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법한 작가들이 많이 나왔다. 김옥애 작가를 비롯해 윤삼현, 김성범, 안수자 등이 있다.

희곡 부문은 채희윤 작가, 고(故) 한옥근 작가가 대표적이다. 채희윤 작가는 8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소설로 등단해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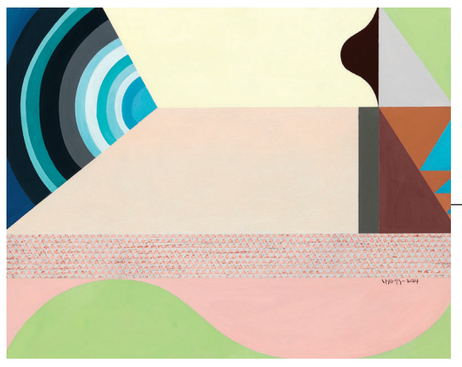
동시로는 전원범 시인, 손동연 시인 등이 여전히 창작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신춘문예하면 떠오르는 박범신 작가의 '문학, 목매달아 죽어도 좋을 나무'라는 당선 소감은 나이 지긋한 문청이나 문인들에게는 익숙하면서도 가슴을 뛰게하는 문구다.

한편 채희윤 소설가는 "일단은 이게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투고를 해야 한다. 정말로 절실한 마음으로 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응모작품에 최선을 다하고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도시환경의 격자구조들



'URBAN GRID-COMPOSITION'

'URBAN GRID-COMPOSITION'

조윤성 개인전, 19일까지
신세계백화점 1층 갤러리

조선대 미대 교수인 조윤성 작가는 지난 20여 년간 '기호적 풍경'을 주목해왔다. 동시대 시각 환경을 재해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선보여 왔다.

기호의 일반적 의미는 뜻을 드러내기 위해 문자, 그림 등을 매개로 활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풍경이 기호를 매개로 새롭게 확장되고 다의적인 의미로 수용된다는 의미다.

조윤성 작가가 'URBAN GRID-COMPOSITION'을 주제로 전시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31일 개막해 오는 19일까지 신세계백화점 본관 1층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도시환경의 토대를 이루는 격자구조를 초점화한다.

그동안 작가는 사회적-기호 이미지 체계를 화려한 화면구성, 색채, 유기적 형태 등을 매개로 묘사해왔다. 특유의 시각과 관점, 단상 등을 풀어낸 작가의 작품은 나름의 독창적 세계를 구축해왔다.

이번에 작가가 선보이는 작품은 도시와 건축에 중심을 두고 있다.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은 건축이 주를 이루는 도시의 구조와 맞물려 새로운 아우라와 이미지를 발현한다. 다채로운 건축물은 이제는 친숙한 도시 환경의 일부로 수용되고 있다.

'URBAN GRID-COMPOSITION'은 대부분 현대 도시의 격자구조를 드러낸다. '격자'는 도시의 핵심적 토대를 이룰 뿐 아니라 건축을 넘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추세, 양상 등을 포괄한다. 도시가 발전하고 확대되는 만큼 작가의 그림과 사유 또한 이와 맞물려 확장적으로 전개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김수영 큐레이터는 "향후 조 작가의 작품은 전통적 회화를 넘어 도시 구조물에 활용되는 스테인레스 등과 같은 재료를 이용한 작업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까운 시기 '어반 그리드'의 모습은 또 다른 변신을 예고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 작가는 조선대 미대와 동 대학원 미술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무등현대미술관 전시 등 다수 개인전을 비롯해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광주미술대전 대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민주화운동 전국화 특별창작 大음악제'

광주작곡가협회, 13일 북구문화센터

'광주콘서트콰이어' 〈광주작곡가협회 제공〉

민주화운동의 '전국화'라는 취지 아래, 광주를 비롯해 서울·경기·대구·경기권 중견 작곡가들의 5월 창작곡을 만나는 연주회가 펼쳐져 눈길을 끈다.

광주작곡가협회(회장 한만섭)가 '제3회 광주민주화운동 전국화 특별창작 大음악제'를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북구문화센터에서 연다.

전남대 외래교수인 강보란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5월의 기억'으로 막을 올리는 공연은 김준석 '5월의 강가에서', 빛고을창작공연 김성훈 대표의 '사련곡'으로 이어진다.

중앙대 교수를 역임한 박이제는 김현철의 시에 곡을 붙인 '다시 피는 무궁화여'를, 연작회 강현우 대표는 '빛고을 탱고'를 선보인다.

정덕기의 '전주비빔밥', 전재헌 노래 '무등산'을 비롯해 대구음협 김재희의 '푸른 꿈의 노래', 전남과학대 김진선 교수의 '무등산은 가까이 있어라'도 울려 퍼진다. 황성호 곡 '아직 묻지 못한 말', 임주섭 '한 오백년', 이민수 '진달래 아리랑'도 관객들을 만난다.

이외 한국작곡가회 한정임 회장의 '동백꽃', 영호남대음악제 추진위원장인 박창민의 '서쪽 바다'도 레퍼토리에 있다. 광주작곡가협회 한만섭 회장은 '내 마음 날개 달아 II'로 대미를 장식한다. 특별 공연으로 백시완 작시, 황석영 작사에 김종률이 곡을 입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함께 부를 예정.

예술감독은 김유정이 맡았으며 지휘에 나주시립합창단 예술감독(겸 상임지휘자) 전진, K아트 앙상블의 오케스트라 연주와 광주콘서트콰이어의 합창 레퍼토리가 곁들여진다.

한만섭 회장은 "광주를 비롯해 서울, 경기, 대구, 경기권에서 활동하는 중견 작곡가들의 작품을 오케스트라와 합창, 관현악 및 성악으로 만나는 공연을 준비했다"며 "5·18의 역사적 가치와 화합의 가치를 음악으로 승화시켜 숭고한 오월 정신을 되새긴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전석 무료(초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오디세우스와 오르페우스 전설, 클래식 음악으로

오늘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그리스 신화에서 오디세우스와 오르페우스는 님프 '세이렌'의 유혹을 견뎠다. 치명적인 매혹에 현혹되지 않고 '영웅'이 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클래식 음악과 영상으로 만난다.

드림피아노앙상블(대표 정수영)이 음악회 '벌거벗은 음악사-세이렌의 치명적인 유혹'을 7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선보인다. 1~2부로 나눠 각각 '오디세우스와 세이렌', '오르페우스와 세이렌'의 비화를 클래식 및 영상으로 소개하는 공연이다.

먼저 오디세우스의 사랑 이야기는 에드워드 맥도웰의 '마녀의 춤 Op.17 2번'에 실린다. 피아노 연주에 전남대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Creteil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수료한 김윤진.

김유정은 비제 '하바네라'를 통해 오디세우스를 유혹하던 세이렌의 모습을 표현한다. 김 씨는 전남대 음악학과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폭풍 속을 항해하던 오디세우스의 일화는 생상 '죽음의 무도 Op.40'에 실린다. 포핸즈 피아노 연주에 일본 센조쿠 음대 피아노과를 졸업한 정수영, 전남대 음악학과 출신 김윤진. 이어 안미영 첼로 협연으로 노스텍사스대 대학원을 졸업한 기영은이 드뷔시 '달빛'을 연주한다. 악곡을 통해 절망을 딛고 다시 환상을 꿈꾸는 오디세우스의 모습을 표현한다.

드림피아노앙상블이 지난 10월 나주시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펼친 '그래서 사랑' 연주회 모습. 〈드림피아노앙상블 제공〉

이외 오르페우스의 이별은 쇼팽 '에튀드 Op.10 3번, 이별의 곡'과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으로 전달한다. 오르페우스와 견주던 세이렌은 글룩 '에우리디체 없이 무엇을 할까', 레오 들리브 오페라 '라끄메' 중 '꽃의 이중창' 등으로 형상화한다.

끝으로 승리를 거머쥔 오르페우스의 영광은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중 꽃의 왈츠', 오펜바흐 오페라타 '지옥의 오르페우스' 중 '캉캉'으로 재현한다.

공연을 기획한 정수영 대표는 "스토리텔링과 영상, 음악을 결합한 이번 공연은 관객들의 공감각을 자극하는 형식일 것이다"며 "TV 프로그램인 '벌거벗은 세계사'처럼 음악사와 신화를 접목, 클래식에 대한 흥미를 배가시길 컷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석 초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이양구 극작가 초청 북토크' 9일 독립서점 소년의서

지난 2008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희곡 '별방'이 당선돼 문단에 나온 이양구〈사진〉 작가는 그동안 꾸준히 창작집을 발표했다. 많은 책을 발간하지는 않았지만 나름의 개성적인 작품세계를 일궈오고 있다.

이양구 작가의 희곡 쓰기와 연계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독립서점 소년의서(대표 임인자)에서 오는 9일 오후 3시 북토크가 열리는 것. '그리고 이면의 삶과 죽음 이양구 극작가 초청 북토크'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 써왔던 희곡들에 얽힌 이야기와 작가로서의 삶을 들려줄 예정이다.

창작집 '쉬는 시간'에는 표제작 '쉬는 시간'을 비롯해 '노란봉투', '일곱집매', '문밖에서' 네 작품이 실려 있다.

표제작 '쉬는 시간'은 학교 수업이 끝나는 쉬는 시간을 모티브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청소년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해 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는 반월공단을 중심으로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가압류 문제를 심도 있게 조명한 희곡이다.

임인자 소년의서 대표는 "이번 북토크는 이양구 극작가가 사유하는 사회적 문제 그 이면에 자리한 개인과 삶 등을 심층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자리"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